

복지사회와 건강

—看護員은 健康人權의 옹호자—

한국보건개발연구원장 朴 亨 鍾

1. 緒 論

1977年 새해부터 시작되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동안 政府는 “着實한 成長과 社會開發의 計劃基調 밑에 “成長, 能率, 衡平의 調和”를 開發戰略으로 하여 그 동안의 經濟開發 爲主로 부터 保健을 포함하는 社會開發을 동반하는 均衡 있는 發展을 指向하는 것으로 그 政策方向을 決定한 바 있다.

經濟開發의 窮極的인 目的이 모든 國民들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國民福祉를 向上 시키는데 있다고 할진대 이러한 政府의 決定은 가장 時期에 알맞고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겠다.

國民保健은 社會開發에 있어서 빼 놓을 수 없는 基本的인 要素의 하나일뿐 아니라 健康狀態의 向上은 모든 社會 및 經濟發展을 促進시키는 手段으로서 또한 重要視되어야 한다. 따라서 第4次 5個年 計劃期間 그동안의 經濟開發의 努力을 통하여 다져진 基盤 위에 모든 國民이 누구나 必要할 때 가장 적절한 醫療를 받을 수 있는 우리나라 實情에 가장 적합한 保健 醫療制度가 마련됨으로서 國民保健向上에 크게 寄與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 保健事業의 重要性

福祉社會를 指向하는 國家의 開發計劃에 있어서 保健分野의 發展이 重要視되어야 하며 社會開發의 一環으로서 保健事業이 強調되어야 함에는 몇가지의 理由를 들 수 있다

1) 國民 各 個人의 健康은 결국 全體 國家의 社會 經濟的 發展의 不可缺의 要素가 될 뿐 아니라 健康增進을 위한 人的投資는 오히려 그 發展을 促進시키는 結果를 가져온다. 經濟發展으로 인하여 얻어진 富는 다시 社會福祉에 再投資를 可能케 함으로서 持續的인 發展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2) 個人의 健康問題는 오늘날 같이 社會가 복잡해지고 相互 連帶性이 더 하여지는 現實에서 全體 社會問題와 分離해서 解決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國民의 各 個人의 健康을 保護하고 增進시키기 위하여는 國家的인 保健事業이 強化되어야 한다.

3) 經濟發展이 되면 國民의 健康問題는 自然的으로 解決될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은 그것이 잘못되었음이 證明되고 있다. 經濟發展이 되더라도 低所得層의 健康問題는 그대로 남게 될 뿐 아니라 오히려 그 度가 심각해져 감을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現象은 國家的 次元에서의 保健政策 및 計劃의 重要性을 意味하는 것이다.

4) 필요할 때 適切한 醫療를 받는 것은 人間의 基本的 權利라는 새로운 각성은 모든 國家로 하여금 國民保健에 力點을 두지 않을 수 없게 되어가고 있다. 이미 世界保健機構는 그 大憲章에서 “人種 宗教 政治上의 意見 또는 經濟的, 社會的 條件의 차별없이 實現可能한 健康을 향유함은 全人類의 基本的 權利이다”라고 明示하고 있다. 人間의 基本的 權利인 醫療의 惠澤을 모든 國民들에게 베풀어 줄 수 있는 方法의 模索과 그 實踐을 위한 努力이 要請되는 것이다.

5) 장차의 南北韓의 對峙를 예상할 때 社會福祉面에서도 우리는 優位에 서야 할 責任은 말할 必要도 없거니와 現 時點에서의 國民總和를 생각할 때 保健 醫療의 不均靚은 急히 解決되어야 할 문제이다.

3. 韓國 健康 醫療의 當面 課題

國民福祉의 不可缺의 要素로 國家 保健事業이 強調되어야 할 우리나라 保健 醫療界는 아직도 解決되어야 할 많은 문제점을 안은채 그 改善을 위하여 몸부림치고 있다. 즉, 現代의 醫學은 나날이 發展을 거듭하고 있고 우리나라의 醫學은 外國에 比하여 조금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그 理論이나 技術에 있어서 많은 發展을 가져왔다. 이러한 發展은 醫學의 分化 專門化를 초래하였고 治療에는 값 비싼 施設과 器具 藥品을 不可避하게 필요로 하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醫療費는 더욱더 비싸게 되고 그 결과는 都市의 一部 特殊層을 제외한 많은 國民들이 現代醫學의 惠澤을 받기 어렵게 되고 있다.

近代的인 施設과 設備 器具를 가지고 教育받은 大部分의 醫科大學 卒業生들은 自己가 받은 敎育을 活用할 수 있는 都市에 集中되기 마련이며 그 결과 都市에는 醫師過剩 現象을 나타내는 반면 이들 醫師를 誘致할 條件을 갖추지 못한 農村醫療問題는 政府의 오랜동안의 宿題로 남아 있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도 一般 大衆들의 保健 醫療에 대한 관심과 기대는 그동안의 經濟 發展으로 生活의 安定과 여유를 되찾게 됨에 따라 더욱 더 커져가고 있는 실정이다.

다행히 最近 政府는 低所得層을 위한 醫療施惠擴大方案을 마련하여 生活手段의 喪失로 인하여 生活維持의 能力이 없거나 곤란한 生活保護對象者에 대하여는 公的扶助에 의한 醫療施惠를 擴充하고 一定額 이상의 所得이 있는 國民階層에 대하여는 醫療保險을 通하여 疾病에 의한 生活上의 危險 即 醫療費負擔을 分散 輕減시키는 方案을 制度化하여 醫療保障의 基盤을 확립하고 國民保健의 향상을 꾀하고 있다. 처음 시도하는 事業이라 여러가지 問題點과 試行錯誤를 豫期할 수 있겠으나 수시로 問題點을 補完하고 改善해 나감으로서 그 實效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4. 轉換期的 保健 醫療界

모든 사람은 必要할 때 가장 적절한 醫療施惠를 받을 수 있어야 하겠다는 意識과 더불어 世界保健機構가 定義한 “健康이란 疾病이나 不具가 없는 狀態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肉體的, 精神的, 社會的으로 健全한 狀態”라는 보다 적극적인 健康概念은 오

날날의 保健醫療分野에 새로운 變化와 革新을 촉진하고 있다.

1972年 5월에 우리나라 醫科大學의 集合體인 韓國醫學教育協會는 地域社會醫學教育 세미나를 主催하여 各 醫科大學教育에 있어서 地域社會醫學을 포함시킬 것을 建議하고 있다. 즉, 地域社會醫學은 지금까지의 個人 患者中心의 醫學에서 부터 集團 및 健康人을 包含하는 地域社會 中心의 醫學으로의 轉換을 企圖하며 在來의 病院中心의 醫學에서 부터 病院外 即 地域社會中心으로의 醫學을 강조하게 된다.

이러한 傾向은 지금까지, 醫師 또는 看護員들의 一方的인 治療爲主의 醫療에서 부터 疾病의 豫防 나아가서 健康의 增進을 包含하는 보다 포괄적인 醫療를 強調하였으며 地域社會의 必要와 要求를 充足시킴을 目的으로 하는 이 地域社會醫學에서는 그 効率的인 실천을 위하여 醫師 看護員外에 地域社會에 存在하는 모든 人的資源(衛生要員 保健教育要員, 看護補助員, 營養指導員, 地域社會開發要員, 開業藥師等)은 물론 地域의 住民들 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의 協力을 要求하고 있다.

특히 地域社會保健委員會, 醫療協同組合, 醫療保險組合等を 통한 保健醫療問題에 대한 住民의 참여는 과거의 醫療의 消費者 또는 受惠者의 立場에 놓여 있던 地域住民들로 하여금 醫療供給者의 역할을 담당하게 될 지경까지 變化되고 있다.

한편 政府는 第4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期間동안

- 1) 醫療資源의 地域間 不均衡分布是正, 低廉한 醫療制度의 開發擴充 및 醫療供給體系의 整備完成을 통하여 모든 國民에게 어디서나 低廉한 醫療의 便益을 提供한다.
- 2) 疾病管理의 強化, 母子保健 向上을 통해 國民 保健과 體位水準을 向上시키고 있다.
- 3) 農漁村 基礎環境施設 및 都市 衛生施設의 擴充, 産業公害 發生의 最少化를 통하여 쾌적한 生活環境을 開發, 保存하며
- 4) 國民保健을 增進하여 人力을 保存하고 勞動 生産性を 提高함으로서 醫療로 인한 社會的 費用의 增加와 消費를 抑制한다는 目標을 세우고 있다.

5. 새 時代의 새 看護員像

우리 保健 醫療界는 분명히 새로운 變化를 위하여 지금 몸부림치고 있다. 國民들은 우리들에게 과거 어느 때보다도 더 많고 더 큰 期待를 걸고 있다. 看護員들은 지금 國民들의 基本權利로서의 健康을 保護하고 그 增進을 도와주는 健康人權의 옹호자로서의 役割을 自進하여 맡고 나선 것이다.

새로운 變化에 對處하기 위하여서는 나 自身이 새로워져야 함은 當然한 일이다. 내가 變하지 않고는 닥아오는 變化에 適應할 수도 없거니와 나 自身이 먼저 變化함으로써 새로운 革新과 變化의 促進者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러한 意味에서 새 時代를 향한 看護界의 變化가 바람직스럽다.

1) 過去의 病院中心에서의 醫療에서 看護員이 담당하던 役割에 比하면 앞으로의 看護員의 活動領域은 比較할 수 없을 程度로 擴大되어 나갈 것으로 期待된다. 특히 醫療의 範圍가 地域社會로 擴大되어 나갈 때 看護員의 病院外 活動과 관련하여 새로운 役割이 賦與될 것이기 때문이다. 看護專門職이 새로운 役割을 擔當할 用意가 있으며 또한 그것이 妥當하다고 認定된다면 看護員의 教育에서 부터 이것이 反映되어야 할 것으로 믿어진다. 看護哲學과 看護教育目標가 새로운 役割에 알맞도록 再定立되어야 할 것이다.

2) 擴大되는 看護員의 새로운 役割은 主로 地域社會의 保健 醫療와의 關聯이 클 것으로 期待된다. 地域社會에서의 役割을 감당할 수 있기 위하여는 住民들로 부터의 信任을

얻을 수 있어야 할 것이며 成功的인 地域社會保健을 위하여 看護員은 적어도 다음의 役割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

첫째로 看護 및 醫療의 提供者로서의 豊富한 知識과 能熟한 技術의 所有者가 됨으로 住民들의 健康要求를 充足시킬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둘째로 住民들을 啓蒙하고 敎育하고 指導하는 敎育者로서의 役割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農村의 保健問題의 大部分이 住民들의 [無知와 衛生習慣의 결여로 인하여 發生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특별히 強調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로 看護員은 地域社會組織의 責任을 질 수 있도록 訓練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 우리나라 醫療는 在來의 病院, 醫師, 患者中心의 醫療에서 부터 住民들의 必要와 要求를 充足시키며 住民들의 保健問題를 해결하기 위하여 地域社會中心의 醫療 및 保健事業을 指向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서 정말로 우리의 努力이 實効를 거두어 住民들의 期待에 副應하는 成果를 얻으려 한다면 住民들을 啓蒙하고 그들을 組織하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 事業에 깊이 參與하도록 指導하고 이끄는 努力이 있어야 할 것이다.

네째로 奉仕者의 役割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奉仕에는 때로는 自己 犧牲도 따르기 마련이며 이러한 犧牲的 奉仕없이 看護事業이 정말 住民들로 부터 親近感和 信賴를 받기는 어려울 것이다. 不幸히 過去 數年間 國民들이 우리 醫療人을 보는 눈은 懷疑와 不信에 차 있음을 우리는 느끼고 있다. 정말 健康人權의 옹호자로서의 새로운 使命을 다하기 위하여서 이 不信을 씻고 信賴를 回復하는 일이라 믿어진다.

3) 地域社會에 있어서의 看護員의 役割을 생각할 때 모든 地域社會活動은 關聯된 모든 사람들의 팀워크에 依하여 이루어짐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地域社會活動에 있어서의 成敗는 그 地域의 他 保健要員, 나아가서는 그 地域社會開發에 參與하고 있는 他分野의 모든 要員은 물론 住民들까지도 포함하는 여러사람들과 어떻게 같이 協力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다고 해도 過言이 아닐 것이다.

4) 看護員의 새로운 役割을 強調하는 것이 在來의 病院看護員의 重要한 役割을 포기하는 일이 되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오랜 歷史를 두고 불쌍한 患者의 苦痛을 덜어주기 위하여 晝夜로 수고하는 病院看護員들의 高貴한 奉仕는 계속 간직하고 發展시켜야 할 看護領域의 一部임은 두말할 必要가 없다.

6. 結 論

우리나라 保健 醫療界는 앞으로, 福祉社會를 指向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必要할 때 適切한 醫療를 할 수 있는 새로운 制度를 만들기 위하여 온갖 努力을 傾注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制度를 始作하는 데 있어서 看護員의 役割은 그 누구보다도 크고 重要한 것은 말할 必要가 없다. 이러한 重한 責任을 맡는 看護人들이 이 時代의 使命을 切感하고 온갖 智慧와 努力을 습하여 그야말로 健康人權의 옹호자로서의 高貴한 使命을 成功的으로 遂行함으로써 참된 福祉社會가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라는 바이다.

同時에 地域社會 住民들의 立場은 過去의 受動的이고 依他的인 態度를 버리고 나의 健康 또는 내 家族 우리 地域社會의 健康은 내가 責任진다는 마음가짐으로서 醫療人의 立場을 理解하고 그들과 協力함으로써 地域社會保健向上에 같이 同參하는 態度가 라만 직스럽다. 여기에 더 하여 國民의 健康을 保護하고 增進시키려는 政府의 果敢한 支援이 습쳐질때 비로소 모든 國民들이 健康한 生活을 누릴 수 있는 참된 福祉社會의 實現이 우리들 눈앞에 한 거름 더 닦아올 것이 틀림 없다.